

기존 동원기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반면 시공으로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 / 735-2344

# 현대불교

고개를 뜨고, 시선은 평생  
**빅만평생통장**

● 비자가 요번 요즈음대로  
내릴 때는 약정금리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경조사자금  
●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용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 노태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4월 1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어려없는 사물을 피하고  
어려없는 이는 가까이 말라.  
(법구경)

**법회 안내**

정토포교원 (02)737-0853

보통인법회 매월 셋째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인요가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7시  
청년정토법회 매주 수 오후7시  
노년법회 매주 수 오전10시  
거사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성토불교대학 매주 화, 목  
오후7시30분

선운사 (02)993-3065

초하루법회 매월 12(음)  
자장법회 매월 18(음)  
방생법회 매월 8(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낮12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본당 천은정사 (0342)701-0770

정가법회 매월 1-3(음)  
자장기도 매월 15-18(음)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소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선지순례 매월 30(음)

광명 금강정사 (02)893-270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호법법회 매월 첫째 수  
오전10시30분

고성 옥천사 (0556)72-0100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낮12시  
미타회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원효사 포교원 (0416)55-2551

어린이상봉회법회 일 오전10시  
불비나불교화생회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울림불교화생회법회 매주  
일 오전9시  
공주불교청년회법회 수 오후7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  
할·포교당은 전화(722-  
4162) 팩스(737-0698)로 연락  
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리  
3054164

## 3개 지방 佛放 추가 인가 '청신호'

### 월주스님 "공약이행" 요구 冥공보처 "공정검토" 답변

불교방송의 3개 지방 네트워크 추가 확대계획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전망이다.

집부는 최근 불교방송을 포함한 평화방송·국동아시안방송·기독교방송의 지방방 및 중계소 추가 인가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92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인 만큼 이를 공정적으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실현방안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말 행정재신위원회가 MBC의 민영화안을 다루면서 방송매체의 형평을 고려해 종교방송의 지방국화방송 건의하고 이를 받아 검토해 산하 '신진방송자위원회'가 다시 '지방과방송 발전 5개년 계획'을 상안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구체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 행생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불교방송 3지방국을 인가하겠다"는 공약을 향유하며 교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것인데 정부는 그간 부산·광주 두 곳만을 인가, 오는 6·27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공약 추가 실현 여부가 주목되던 과제였다.

이에 대해 불교방송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아무런 인질을 받은 바 없으나 이미 3개국 추가 개선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무리지었으며 곧 정부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문태 기자)

## 남북불자 접촉승인

### 북일련 조계종 총무원 초교일 공동법회추진

통일원은 조계종 총무원이 요청한 북한 주민접촉을 지난 12일 승인했다.

통일원은 남북이 급박해 판문점을 불기하르르 제3국에서 5월말까지 접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총무원은 이어따라 5월 7일 남북불교공동법회요식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 중국 미국등 제3국의 푸트를 통해 4월중 조선불교도연맹측과 접촉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총무원은 지난달 25일 박태호 위원장 등 조총련 관계자와의 접촉요청서를 3월 25일 통일원에 제출했다.

## "종단개혁 정신 계승 천명"

### 4·10기념 대법회·토론회

종단개혁과 불교자주의 계승대법회 행사추진위원회(상임대표 청와스님)는 지난 7일과 10일 조계사에서 '종단개혁과 불교자주의를 위한 대법회'와 '종단개혁과 불교자주의 계승대법회'를 각각 병행했다.

3.29법인과 4.10전국승려대회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와 대법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종단개혁정신의 계승발전을 교계내부에 천명했다.

해임스님(조계종 원로의회 의장),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법회에서 해임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발전과 불교 자주의는 자체 정화와 이익정경, 부처님의 계율을 엄숙히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조계종, 선학원 정관개정 재요구

### 3개항으로 축소...6월15일까지 답변촉구

조계종 선학원 대법특위(위원장 방동스님)는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선학원에 정관개정을 3개항으로 축소해 다시 요구, 6월 15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계종이 요구한 정관변경은 △제3조 목적에 '대한불교 조계종 재의 승려중에서 선출한다' 삽입 △제3조 잔여재산의 귀속조항에 법원해산후 잔여재산은 '대한불교 조계종에 귀속한다' 삽입 등이며 특히 제6조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재직이사중 3분의 1은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학원을 조계종의 '별도기구'로 인정 중앙총회 참여와 함께 분담금 납부등 교구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단계적 하는 등 자율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선학원, 분리 반대" 설문조사 결과 56%

한편 이날 특위는 그동안 실시한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스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응답한 수는 총 116개(창간본원장 41, 본원장 30, 포교원장 19, 기타 13, 무응답 13)로, 조계종과 선학원이 각각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35%) 보다는 정관개정을 통한 긴밀한 관계유지(22%) 조계종의 특별교구화(34%)로 응답, 반 이상이 조계종과 선학원이 분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계종의 선학원 정관 개정요구에 대한 선학원의 불가항력에 대해 "종단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38%)가 올바른 결정이다(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관변경불가 결정이유에 대해 '일부 스님들의 가혹한 유지'가 23% '조계종단의 추지는 이해하나 너무 일방적 요구(4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조사된 선학원의 '분리정화의 여론조사' 응답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해임스님(조계종 원로의회 의장),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법회에서 해임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발전과 불교 자주의는 자체 정화와 이익정경, 부처님의 계율을 엄숙히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7일 롯데호텔에서 중앙승가대 준비를 위한 발전위원회 창립법회가 열렸다.

## "중앙승가대 발전 소불자 동참 호소"

### 7일 창립법회에서 3억원 모금·목표액 691억원

'얼마를 써야 할까' 지난 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승가대 발전위원회 창립법회에는 교계 내외의 인사와 중진스님 등 1천여명이 참가, 거둬드는 중앙승가대 의향서는 3억원 이상에 달하는 발전기금의 가부를 서면으로 약속했다.

중앙승가대 발전위원회 위원장 월주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중앙승가대를 통해 불교화자를 육성하고 수행관을 건설해 참다운 승가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장 송산스님은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세계적인 불교대학으로 육성하는 데는 2천만 명의 헌신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위원회 창립법회를 계기로 중앙승가대(학장 송산스님)는 정규대 승격을 위한 학사이전 등의 당면과제 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규대 승격의 선결조건으로 학사이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앙승가대학은 다음달 5만 4천여명 규모의 갑포 증명사 부지에 새 학사 신축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9월 2월말까지 새 학사를 법장 기준에 맞게 설립, 교육부로부터 정규대로 승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에 설립될 새 학사에는 강의실, 수행관(기숙사) 22개동, 선수영관, 대학본부 등 10개 건물이 들어선다.

학과도 97년 역경학과 불교사학과를 비롯 인차적으로 문화재관리과, 불교미술학과 등을 계속 신설해 정규대학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캠퍼스 이전설사에 소요될 총액 91억여원의 재정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 있다.

발전위원회를 구성,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방안 외에도 중앙승가대는 종단차원에서와 사찰법당 부과, 신촌공원사 부지매각(종회 의결사항), 대기업에 참여 유도, 학교운영을 위한 직영사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건국의 불자들이 중앙승가대 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 중 성직자를 배출하는 대학이 약 43개교 784명, 불교는 전체 대비 학교비율 4.65%(2개교), 입학정원 대비 1.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중앙승가대의 정규 대승격과 새로운 위상 제고는 하루 속히 성취해야 할 숙원사업이다. (도광선 기자)

**목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風流 한다. 불교·도교·유교의 사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로써 뜻 생명을 교화한다." 이것은 최치원 선생이 찬술한 난립비의 서문에 나오는 글이다. 단군을 숭배하는 가르침을 종류라 했으니 종류란 밝음을 의미하는 이무식 표기라 한다.

요즘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의 흥전교와 흥주교가 입

북한 사건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정부의 허락도 없이 비밀리에 입북한 사실이 문제 시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대남교란 정세에

라 주장했다고 전한다. 남북의 종교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50년 가까이

**안호상씨의 입북**

대종교가 이렇듯 무리가 있다며 혹평하고 있다.

입북한 대종교의 흥전교 안호상씨는 "천만 민족의 대종단결과 남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북극이 취한 행동"이

고학화된 분단으로 이질화되기 시작한 민족성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도 남북 종교간의 폭 넓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흥부듯이 중구난방식의 대북접촉이 되어

서도 안되리라 본다. 또한 특정 종교의 정치적 대외도 안되며, 정치적 책략에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한민족의 통일과 항구적 발전이라는 대명제만이 필요하다.

대종교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在世神化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의 인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평계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설을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하리라.

## 세계의 자원을 우리의 자원으로

석유에너지의 미래를 개척하는 한국석유개발공사













「우리의 손으로 석유를 생산한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자본과 기술로 개발된 석유가  
바로 우리산업과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1979년 발족 이래 10여년 동안  
고집스럽게 힘 쏟아온 집념의 결과입니다.  
균형있는 에너지공급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안정되게 지키려는  
우리의 꿈은 크고 원대합니다.

밖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유전개발 참여로  
세계의 자원을 우리의 것으로 창출해 내며  
안으로는 대륙붕 탐사로 '산유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개척정신—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정신입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  
Korea Petroleum Development Corporation